

유니버설 패션의 효과연구: 장애인 패션쇼를 중심으로

안종숙* · 이난희

호원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현대 사회는 사람들의 복지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후생 복지 시설, 의료지원 등 다방면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의 심리적인 충족이라는 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 개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의복에 착안하여 유니버설 패션에의 시도로써 장애인을 위한 패션쇼를 본 연구자는 기획하여 개최했다.

유니버설 패션의 효과로서는 1) 자립 능력의 활성화 2) QOL(quality of life-생활의 질)의 향상 3) 사회참가의 촉진이 있는데 장애인들의 패션쇼를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효과를 장애인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유니버설 패션을 보급시킴으로서 장애인들도 쾌적한 의생활을 영위하여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상품개발을 촉진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으로 유니버설 패션에 관해 고찰하였으며, 실증적 분석으로는 장애인의 패션쇼를 기획하여 개최한 것을 검토하였다. 패션쇼를 진행하는데 있어 우선 각 모델에게 생활환경과 의복에 관한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자료를 토대로 각 장애별로 디자인을 제안하고 작품 제작 및 구성을 하였다. 쇼는 총 3회를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1회 및 2회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쇼의 구성은 각 회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했는데 1부는 '함께하는 세상'(기능 복)과 2부는 '아름다움 드러내기'(세련된 의상)를 중심으로 장식 액세서리,

휠체어, 목발, 지팡이, 메이크업까지를 포함한 토털 코디네이션을 지향했다.

모델의 연령은 27세에서 51세까지이고, 남녀 모두 18명이며, 그 중 남성이 3명이었다. 장애의 정도로는 뇌혈관 장애 척추장애, 소아마비, 뇌병변 등의 장애로 인한 양쪽 하지 및 사지의 마비인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발이나 휠체어, 지팡이를 사용했다. 패션쇼 종료 후에는 참가자에 대해 기획의 효과와 관계자의 의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델로 참가한 장애인들의 응답으로는 1) 대중 앞에서 당당함을 지니게 되었다 2) 자기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3) 꾸미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4) 주위 사람들에게 장애인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5) 웨딩드레스 쇼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대답했다.

이상과 같은 의식 변화는 쇼에 참가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에게 몇 내기에 대한 의식 변화가 있었으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식개발의 가능성이 명백해졌다.

또한, 대부분의 참가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그 후의 3회 패션쇼에서는 서로 모델이 되려고 경쟁을 했고 일상생활에서도 패션쇼 후에 외출도 자주하게 되었고 미용실 출입이나, 옷을 구입하는 횟수도 많아졌다고 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니버설 패션의 효과인 1) 자립 능력의 활성화 2) QOL(quality of life-생활의 질)의 향상 3) 사회참가의 촉진이 이루어짐으로써 장애인들이 심리적으로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으며 단지 조금 불편할 뿐 보통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커졌다는 점이 장애인 패션쇼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